

1904년 3월 25일 신안 하의면 옥도서 첫 기상예보

(목포기상대 임시 기상관측소)

올해로 110주년...목포기상대 가보니

하루 2시간 간격 풍향·기온 등 상세히 기록 광주기상정보보다 30년 앞서 설립 국내 最古

‘최고 기온은 8.4도에 이르렀고 최저 기온은 3.4도, 초당 5m의 바람이 불고 습도 75% 수준이다.’
지금부터 110년 전인 1904년 3월 25일 신안군 신안면 하의면 옥도의 기상 상황이다. 목포기상대에 남아있는 ‘관측야장’(현재 기상정보)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오래된 옛 기상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오는 23일 설립 110주년을 맞는 목포기상대가 국내 최고(最古) 기상대 로 역사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목포기상대는 지난 1904년 3월 목포항에서 45km 떨어진 전남 무안부 목포(현 신안군 하의면 옥도)에 설치되면서 임시 기상관측소로 첫 기상 관측 임무를 부여받았다.
110년 전이라고 해도 하루 2시간

간격으로 6차례에 걸쳐 파악된 당시 풍향, 풍속, 기온, 습도, 기압, 최고·최저 기온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그리고, 해상풍속 등이 빠진 것 외에는 현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광주지방기상청 목포기상대 정덕환 대장은 “현 광주지방기상청의 전신인 광주측후소(1938년)보다 30년 앞선 국내 최초 근대 기상관측소가 옥도에 세워진 것”이라며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일”이라 평가했다.
당시 옥도에 기상 관측소가 세워진 데는 ‘기상’보다 ‘군사 목적’이 더 컸다. 러·일전쟁을 앞둔 일본은 8개 방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른바 다

리아몬드 형태에 위치한 ‘팔구포’라 불리던 옥도를 함대 집결지로 점찍고 여기에 필수적인 기상 관측 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1906년 옥도 관측소가 목포측후소(현 목포기상대)로 옮기고 난 뒤에도 해방 전까지 기록된 월보와 연보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당시 광주·전남 지역 기후를 파악할 수 있다.
중요한 역사적 기록물이 적지 않은 반면, 가치에 비해 소홀하게 다루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부분의 기록 자료가 종이재질이라 습도와 온도, 햇빛에 취약한데도, 목포기상대 2층에 별다른 조치 없이 관련 자료가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바래지고 너털너털 찢어지는가 하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 곳곳에 낙서가 적힌 자료도 찾아볼 수 있다.
그나마 신안군이 당시 옥도에 있는 옛 관측소 부지를 ‘대한민국 근대 기상관측 발상지 복원계획’에 따라 복원하고 기념탑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미지수다.
목포기상대 관계자는 “목포기상대의 역사적 가치를 반영, 올해 문화재 등목을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신안군과도 협의해 기상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관측소 복원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복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1분 해질 18시 41분 달출 19시 19분 달몰 06시 39분

미세먼지 '보통'
오후부터 비 소식 있으니 우산 챙기세요.

광주	흐리고 비	7/20°C
목포	흐리고 비	7/17°C
여수	흐리고 비	9/16°C
나주	흐리고 비	5/20°C
완도	흐리고 비	8/17°C
구례	흐리고 비	4/19°C
강진	흐리고 비	4/17°C
해남	흐리고 비	5/17°C
장흥	흐리고 비	3/18°C
순천	흐리고 비	7/19°C
영광	흐리고 비	7/19°C
진도	흐리고 비	6/17°C
전주	흐리고 비	8/21°C
군산	흐리고 비	7/20°C
남원	흐리고 비	3/20°C
옥산도	흐리고 비	8/15°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m 0.5~1.0m 관심 보통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m 1.0~2.0m 관심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목포 02:31 07:49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5~2.5m 14:50 20:06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여수 09:39 03:24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5~2.5m 21:56 15:36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8(화)	19(수)	20(목)	21(금)	22(토)	23(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1/17	6/13	4/18	1/10	3/14	5/14

성범죄 교수·강사 대학 강단서 퇴출 교육부, 법령 개정 추진

대학교수의 학생 성추행 사건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 교육 당국이 성범죄 전력에 있는 교수나 강사를 대학 강단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하지 못하도록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검토하는 방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대학까지 포함하는 방안이다.

해당 법률 제56조에서 성범죄로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0년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등에서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산업대·전문대 등 포함)을 추가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에서 성인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과목 선이수제 등으로 미성년인 학생도 이용하므로 취업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자격을 박탈하는 초·중등 교원과 형평을 맞추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성희롱의 비위 정도와 과실이 약할 경우 견책에 그치는 징계 기준을 감봉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필뉴스



16일 순천시 왕지동 한 교회에 조성된 매화정원의 흥매화·청매화·흑매화가 활짝 터뜨려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조선대 이사회 이사장 선출 또 불발

강현욱·유세희 후보 2차 표결서도 과반 실패...내달 14일 다시 선출기로

조선대 2기 이사회가 이사장 선출에 또 실패했다.
16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이사회는 지난 14일 오후 이사장실에서 강현욱 이사 등 이사 8명이 전원 참석 한 가운데 제2기 이사회 이사장 선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첫 이사회에서 이사

장 선출에 실패한 뒤, 두번째 열렸지만 역시 이사장을 선출하지 못했다.
강현욱 전 이사장과 유세희(전 한양대 부총장) 이사가 후보로 추천돼 표결에 부친 결과 제1차 표결에서 강현욱 이사 4표, 유세희 이사 3표, 무효 1표로 재적의 과반 득표(5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 무산됐다. 이어 2차 표결

이 진행됐지만 1차 표결과 같은 결과가 나와 이사장 선출을 하지 못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사회는 다음달 14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이사장 선출 실패는 이사회가 학교 측과 옛 경영진측 이사로 양분 돼 표

결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강현욱 이사에게는 강현욱·김용익(동신대 교수)·김창훈(전 시민의소리 대표)·이광호(광주 동구청 직원) 이사 등이 지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옛경영인 측 추천이사인 유세희 이사에게는 유세희·김현정(글로벌에너지리소시스 대표)·이효복(전 조선대 교수) 이사 등이 표를 행사했다.
여기에 개방이사인 황금추(동광건설 회장) 이사가 무효표를 던지면서 강현욱 이사가 재적의 과반을 얻지 못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전남 이번주 내내 비 '오락가락'

이번 주, 광주·전남지역에는 비 소식과 함께 번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일 광주·전남지역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 날 오후부터 5~20mm 가량의 비가 내리겠다. 이 비는 다음날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후 한동안 소강상태에 접어들다가, 19일 오후부터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날 새벽까지 그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비와 함께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

면서 기온은 점차 오르겠다. 17일 광주와 담양의 최고기온이 20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8일 역시 광주 최저기온이 11도, 여수 12도, 목포 10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10도를 웃도는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다.
비가 그친 뒤 20일부터 주말까지는 북쪽의 차가운 공기가 확장 돼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의 최고기온이 10도 이하에 머무르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복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전경, 승용차에 치여 숨져

지난 15일 오전 9시40분께 순천시 승주읍 전남지방경찰청 507 전투경찰대 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이 부대 소속 김모(22) 상경이 장모(52)씨의 소렌토 승용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제대 8개월여를 남겨둔 김 상경은 이날 외출 허가를 받고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중이었다.

경찰은 운전자 장씨가 편도 1차로에 정차된 차를 피해 맞은편 차선으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던 중 무단횡단하던 김 상경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대 측은 시내버스 정류장 이전과 건널목 설치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맞춤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 옆 두레유리 골목) T.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결혼 정보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출연, 전주고등학교출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女	男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63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민주시 사선동) (063) 275-7766